



THE UNITED

OFFICIAL MAGAZINE
2023.10.25 / 제8호

vs SHANDONG PREVIEW

'G조 1위' 인천 홈에서 산동 잡고
조별리그 3연승 노린다

vs GWANGJU PREVIEW

더 높은 곳 바라보는 인천,
광주 상대로 설욕전 노린다

vs JEONBUK PREVIEW

트로피 노리는 인천, 전북 잡고
8년 만에 결승 진출 노린다

BLUEMAN INTERVIEW

'가장 빠른 승리의 특급 열차' 제르소
"인천에 도움이 된다면 어떤 것이라 할 수 있다"

ROOKIE INTERVIEW

첫 시즌에 모든 대회 경험한 김기희,
꾸준히 열심히 하는 선수로 남고 싶다

IUFC REPORTER REPORT

인천유나이티드의
파이널리운드 역사 돌아보기



제호 THE UNITED / 발행일 2023년 10월 25일 / 등록번호 영등포, 라00591

내보처 인천유나이티드 - 인천시 중구 첨성로 246 인천축구전용경기장 내 3층 / 전화 032-880-5500 / 홈페이지 www.incheonutd.com

기사 인천유나이티드 UTD기자단 / 디자인인쇄소별행소 더스포츠커뮤니케이션 -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83 한국휴렛팩커드빌딩 22층

* 이 책자에 게재된 글, 사진, 도표 등 모든 기사 판권은 본사가 소유하며 별행인의 허가 없이는 그 내용을 무단 전재하거나 복사 할 수 없습니다.



INCHEON UNITED

2023 SQUAD



조성환 김독
HEAD COACH



변재석 코치
COACH



박용호 코치
COACH



김재성 코치
COACH



김광석 코치
COACH



김이설 GK 코치
COACH



오지우 피지컬코치
PHYSICAL COACH



김한운 스카우트
SCOUT



황근우 선수트레이너
ATHLETIC TRAINER



파민희 선수트레이너
ATHLETIC TRAINER



진도형 선수트레이너
ATHLETIC TRAINER



최재혁 물리치료사
PHYSICAL THERAPIST



김민석 팀매니저/통역
TEAM MANAGER



조용희 장비담당관
KIT MANAGER



육태훈 전력분석관
PERFORMANCE ANALYST



박준성 통역
INTERPRETER



김동현
GOAL KEEPER



이태희
GOAL KEEPER



민성준
GOAL KEEPER



김유성
GOAL KEEPER



김연수
DEFENDER



오반석
DEFENDER



문지한
DEFENDER



강윤구
DEFENDER



정동윤
DEFENDER



임형진
DEFENDER



김준업
DEFENDER



엘브리지
DEFENDER



김동희
DEFENDER



김동민
DEFENDER



권한진
DEFENDER



이명주
MIDFIELDER



김도혁
MIDFIELDER



신진호
MIDFIELDER



박현빈
MIDFIELDER



민경현
MIDFIELD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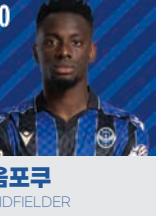
최우진
MIDFIELDER



김현서
MIDFIELDER



박진홍
MIDFIELDER



에제크이엘
MIDFIELDER



김세훈
MIDFIELDER



무고사
FORWARD



에르난데스
FORWARD



제르소
FORWARD



김민석
FORWARD



김보석
FORWARD



하동선
FORWARD



홍시후
FORWARD



김대중
FORWARD



박승호
FORWARD



천성훈
FORWARD

01R	02월 25일(토) 20:30	2	서울 : 인천	1	서울월드컵
02R	03월 04일(토) 14:00	3	인천 : 대전	3	인천축구전용
03R	03월 12일(일) 16:30	1	인천 : 제주	0	인천축구전용
04R	03월 18일(토) 14:00	5	광주 : 인천	0	광주축구전용
05R	04월 01일(토) 16:30	0	인천 : 대구	0	인천축구전용
06R	04월 09일(일) 16:30	2	전북 : 인천	0	전주월드컵
07R	04월 16일(일) 14:00	0	강원 : 인천	2	춘천송암
08R	04월 22일(토) 19:00	2	인천 : 수원FC	2	인천축구전용
09R	04월 25일(화) 19:30	0	인천 : 울산	1	인천축구전용
10R	04월 30일(일) 15:00	0	포항 : 인천	2	포항스타디움
11R	05월 05일(금) 16:30	0	인천 : 수원	1	인천축구전용
12R	05월 10일(수) 19:30	2	제주 : 인천	0	제주월드컵
13R	05월 14일(일) 16:30	0	인천 : 전북	0	인천축구전용
14R	05월 20일(토) 16:30	1	인천 : 광주	1	인천축구전용
FA컵	05월 24일(수) 19:00	3	인천 : 경남	0	인천축구전용
15R	05월 27일(토) 19:00	2	대구 : 인천	2	DGB미래은행파크
16R	06월 04일(일) 16:30	1	대전 : 인천	3	대전월드컵
17R	06월 07일(수) 19:30	1	인천 : 서울	1	인천축구전용
18R	06월 11일(일) 19:00	0	수원 : 인천	0	수원월드컵
19R	06월 25일(일) 16:30	0	인천 : 포항	1	인천축구전용
FA컵	06월 28일(수) 19:00	3	인천 : 수원	2	인천축구전용
20R	07월 02일(일) 20:00	1	인천 : 강원	0	인천축구전용
21R	07월 08일(토) 19:00	2	수원FC : 인천	2	수원종합
22R	07월 12일(수) 19:00	1	울산 : 인천	2	울산문수
23R	07월 16일(일) 20:00	2	인천 : 대전	0	인천축구전용
24R	07월 22일(토) 19:30	0	서울 : 인천	1	서울월드컵
25R	08월 06일(일) 19:00	2	전북 : 인천	0	전주월드컵
26R	08월 13일(일) 19:30	3	인천 : 대구	1	인천축구전용
27R	08월 18일(금) 19:30	2	인천 : 광주	2	인천축구전용
PO	08월 22일(화) 19:30	3	인천 : 하이퐁	1	인천축구전용
28R	08월 25일(금) 19:00	1	수원FC : 인천	2	수원종합
29R	09월 02일(토) 19:00	0	인천 : 포항	2	인천축구전용
30R	09월 16일(토) 14:00	2	인천 : 제주	1	인천축구전용
31R	09월 24일(일) 16:30	1	강원 : 인천	1	강릉종합
32R	09월 30일(토) 19:00	2	인천 : 수원	0	인천축구전용
33R	10월 03일(화) 19:00	4	인천 : 카야	0	인천축구전용
34R	10월 08일(일) 15:00	0	울산 : 인천	0	울산문수
35R	10월 25일(수) 19:00	0	인천 : 산동	0	인천축구전용
FA컵	11월 01일(수) 19:00	0	전북 : 인천	0	전주월드컵
4차전	11월 07일(화) 19:00	0	산동 : 인천	0	자손을립스포츠
36R	11월 12일(일) 14:00	0	인천 : 전북	0	인천축구전용
37R	11월 24일(금) 19:30	0	인천 : 울산	0	인천축구전용

-상기 경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변경된 경기 일정과 경기 관련 소식은 인천유나이티드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INCHEON VS SHANDONG
10월 25일(수) 19:00
@인천축구전용경기장



GWANGJU VS INCHEON
10월 28일(토) 16:30
@광주축구전용경기장

'G조 1위' 인천, 홈에서 산동 잡고 조별 리그 3연승 노린다

글 = 손지호 UTD기자 (thswhlgh50@ajou.ac.kr)

인천의 10월 첫 홈경기 상대는 중국 슈퍼리그 소속 산동 타이산과의 아시아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 3차전이다. 포항과의 리그 34라운드 원정 경기 이후 5일 만에 치르는 경기다. 인천은 앞선 조별리그 2경기를 모두 승리하며 G조 1위에 올라있다. 이번 산동과의 홈경기 승리로 조별리그 연승 행진을 노리고 있다.

산동은 FA컵 우승 팀 자격으로 이번 아시아챔피언스리그에 참가했다. 지난 시즌 리그에서도 우승 팀과 승점을 동일했지만 골득실에서 밀려 아쉽게 우승을 놓쳤을 만큼 중국 강호다. 산동은 이번 시즌 중반 최강희 감독이 지휘봉을 잡으며 리그 27경기에서 단 4패만 했을 만큼 상승세를 달리고 있다. 현재 산동은 G조에서 1승 1패로 3위에 올라있다.

산동에는 우리가 익히 아는 마루앙 펠라이니(벨기에)가 뛰고 있다. 유럽 리그에서 활약하며 중국 리그로 이적한 펠라이니는 이전과 다르게 미드필더가 아닌 최전방 공격수로 활약하고 있다. 팀의 주득점원으로 자리 잡은 만큼 인천의 경계 대상 1호다. 이외에도 모이세스 마갈랑이스(브라질), 마테우스 파투(브라질) 등 외국인 선수들을 주의해야 한다.

산동과는 지난 2018년 월드컵 휴식기에 중국 전지훈련에서 두 차례 연습경기를 치른 바 있다. 당시 1승 1무를 거두며 좋은 기억을 가졌다. 하지만 인천과 산동 모두 5년 전과는 전혀 다른 팀이 되어있기 때문에 지난 맞대결과는 다른 승부가 될 것이다.

더 높은 곳 바라보는 인천, 광주 상대로 설욕전 노린다

글 = 손지호 UTD기자 (thswhlgh50@ajou.ac.kr)

인천의 파이널A 두 번째 경기 상대는 광주FC이다. 이번 시즌 세 번의 맞대결에서 2무 1패로 매 경기 쉽지 않은 경기를 치렀다. 지난 3월에 치른 4라운드 원정 경기에서 5-0으로 패했고 두 번째, 세 번째 만남이었던 14라운드, 27라운드 홈경기에서 각각 1-1, 2-2 무승부를 거뒀다. 이번 시즌 인천은 아직까지 광주를 상대로 승리하지 못했다.

광주의 이번 시즌 돌풍이 매섭다. 시즌 초 K리그 2에서 승격 후 첫 시즌이기 때문에 고전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하지만 이정호 감독의 짜임새 있는 전술과 선수들이 높은 전술 이행도에 힘입어 리그 3위로 정규 라운드를 마감했다. 첫 번째 목표였던 파이널A에 오른 광주는 이제 아시아 무대를 넘보고 있다.

광주는 공수에 있는 모든 선수들이 준수한 활약을 펼치고 있다. 아사니, 엄지성이 팀 득점을 이끌고 있고 그 외에도 많은 선수들이 골고루 공격포인트를 기록했다. 또한 수비 라인도 견고하다. 정규 라운드 33경기에서 30실점만 허용하며 최소 실점 1위에 올랐다. 경기 당 1골도 채 한 납하지 않았을 만큼 탄탄한 뒷문을 자랑한다.

인천과 광주의 통산 전적은 6승 14무 7패로 팽팽하다. 하지만 최근 10경기 전적에선 1승 4무 5패로 다소 악한 모습을 보였다. 상대 전적으로 결과를 가능할 수 없지만 매번 쉽지 않은 경기였음을 분명하다. 인천이 이번 광주 원정에서 승리를 통해 지난 경기 설욕전을 성공할 수 있을지 기대해 보자.



JEONBUK VS INCHEON
11월 1일(수) 19:00
@전주월드컵경기장



SHANDONG VS INCHEON
11월 7일(화) 19:00
@지난올림픽스포츠센터

트로피 노리는 인천, 전북 잡고 8년 만에 결승 진출 노린다

글 = 손지호 UTD기자 (thswhlgh50@ajou.ac.kr)

인천의 11월 첫 경기는 전북과의 FA컵 준결승이다. 인천은 FA컵 16강부터 참여해 경남FC, 수원삼성을 각각 3-0, 3-2로 승리하고 준결승에 올랐다. 반대로 전북은 16강에서 파주시민축구단, 8강에서 광주FC를 각각 5-2, 4-0으로 승리하고 준결승에 올랐다.

전북은 이번 시즌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 절대 강자의 이미지였지만 부진하면서 리그 마지막까지 중하위권 경계선에 머물러 있었다. 단 페트レス쿠 감독이 부임하면서 나아지는 듯 보였지만 여전히 이전 시즌과는 다른 저조한 득점력이 발목을 잡고 있다. 하지만 FA컵에선 2경기에서 9골을 몰아치며 막강한 득점력을 선보였다.

전북은 문선민과 한교원의 빠른 발을 활용한 측면 플레이를 주로 펼친다. 중앙에는 장신 공격수인 박재용, 구스타보가 득점을 노린다. 특히 눈여겨볼 부분은 수비력이다. 전북은 리그 전체에서 31실점으로 최소 실점 2위에 올라 있다. 홍정호, 정태욱 등 리그 정상급 센터백과 파트라세이 팀에 적응하면서 뒷문을 굳게 잡았다.

인천은 전북 원정길에서 쉽지 않았다. 이번 시즌 전북과의 3번의 리그 맞대결에서 1무 2패를 거뒀다. 그중 두 번의 패배가 모두 전북 원정에서 받은 성적이다. 하지만 패배 당시와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다르다. 팀의 완성도도 높아졌다.

'쉽지 않은 원정길' 인천, 산동 원정길을 승리로 장식하라

글 = 손지호 UTD기자 (thswhlgh50@ajou.ac.kr)

인천의 11월 두 번째 경기는 산동 타이산과의 아시아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 4차전 원정 경기다. 홈에서 맷대결 이후 2주 만에 다시 만난다. 지난 첫 맞대결과 다르게 서로에 대한 정보가 충분하기 때문에 양팀 감독들의 전략 싸움이 승리 키포인트로 작용할 것이다.

인천은 산동의 홈 이점을 주의해야 한다. 산동은 7월부터 지금까지 홈에서 공식 경기 7승 1무 2패를 거뒀다. 그중 두 번의 패배도 1실점 경기로 홈에서 강한 모습을 보였다. 일방적인 홈팀의 응원 속에서 경기가 치러질 가능성성이 높다. 부담감을 이겨내고 이 부분에 빠르게 적응해 인천의 플레이를 펼쳐야 한다.

또한 인천은 부상을 조심해야 한다. 중국 리그 소속 팀들은 거친 플레이로 유명하다. 인천은 이 경기 이후에도 중요한 경기를 남겨두고 있다. 빠듯한 일정 속에서 전북, 울산, 요코하마라는 강팀들과 경기를 치러야 하기 때문에 절대 부상자가 나와선 안된다.

인천은 아시아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 전 리그와 FA컵 원정 경기를 치른 뒤 중국으로 떠난다. 타이트한 경기 일정 속 3경기 연속으로 원정을 떠나는 것이 체력적으로 쉽지만은 않다. 하지만 인천은 3개 대회를 동시에 병행하면서 조성환 감독의 로테이션 전략 효과를 많이 봤다. 주축 선수들과 어린 선수들까지 좋은 활약을 보였기 때문에 선택지가 굉장히 많다.



이제는 대건고로! 광성중의 승급 선수 5인방을 만나다

글 = 성의주 UTD기자(sungeujushin@gmail.com)

길게만느껴지던 K리그도 어느새 끝을 향하고 있다. 끝은 또 다른 시작이다. 다음 시즌을 위한 준비도 시작되어야 하는 시기다. 인천유나이티드 유소년 팀도 마찬가지다. 인천유나이티드 U-15 광성중학교는 인천유나이티드 U-18 대건고등학교로 승급할 선수 선발을 마쳤다. 주장 양진욱부터 구현빈, 한준희, 김정율, 김민결, 조해성까지 6명이 그 주인공이다. 내년부터 인천 대건고의 신입생으로 이름을 알릴 선수들을 UTD기자단에서 먼저 만나봤다.(아슬게도 부상으로 외부 재활을 받고 있는 조해성은 만나지 못했다)

주장을 맡은 미드필더 양진욱은 2학년인 지난 시즌부터 주전으로 활약했다. 인천 광성중을 이끄는 이성규 감독은 “지능적인 축구를 하는데, 활동량도 좋은 선수라며 그를 칭찬했다. 좋은 킥력을 가진 양진욱은 세트피스에서도 강점을 발휘한다. 또한, 양진욱은 인천유나이티드 U-12, U-15를 거쳐 U-18까지 진학하게 된 예비 성골 유소이기도 하다. 그는 “인천에서 U-12, U-15를 모두 나왔고 U-18까지 진학할 수 있다는 것 이 뿌듯하다. 인천에서 많이 뛰었다는 사실 자체로도 좋다. 그 생각을 하기만 해도 경기를 뛸 때 더 힘이 난다. 인천에 대한 자부심으로 더 좋은 경기를 할 수 있게 되는 것 같다”며 자부심을 드러냈다.

‘예비 성골 유소’는 한명 더 있다. 바로 구현빈이다. 인천유나이티드 U-12를 거쳤고, 인천 광성중 졸업과 인천대건고 진학을 앞두고 있다. 그는 “인천의 자부심을 많이 느낀다. 동기 부여도 크고 힘도 많이 난다”고 말했다. 186cm의 장신인 구현빈은 중앙 수비를 주로 보지만 수비형 미드필더도 볼 수 있다. 이성규 감독도 “어느 포지션이라도 준수하게 수행하는 멀티 플레이어”라고 언급하며 “중장에서의 빌드업 능력이 매우 탁월하고 경기 운영 능력도 좋다”고 칭찬했다. 더불어, 양발을 자유자재로 쓰고 뛰어난 공중볼 경합 능력과 시야가 넓다는 장점도 갖췄다.

포박을 사용하는 인천 광성중에서 구현빈과 함께 선터백 듀오로 활동한 한준희도 인천 대건고로 향하게 됐다. 적극적인 플레이가 특징인 그는 스피드가 좋고 볼 경합도 뛰어나다. 상대의 공격에 유동적으로 잘 대응하는 선수로, 이성규 감독도 “기동성이

매우 뛰어나서 수비적인 부분에 큰 강점이 있다. 상대가 가진 위협적인 요소와 상황을 모두 잘 카バー한다”고 설명했다. 올해도 U-15 대표팀에 소집된 한준희에게는 대표팀 역시 큰 동기부여다. “이번 아시안게임에서도 인천 출신인 정우영 선수를 보면서 많은 것을 느꼈다. 나도 꾸준히 태극마크를 달고 뛰면서 인천의 자랑이 되고 싶다”며 포부를 밝혔다. 이어 그는 “인천유나이티드의 명예를 위해 뛰고, 팀을 위해 헌신하는 선수가 되겠다”며 각오를 밝혔다.

인천 광성중의 최전방을 맡는 김정율 역시 인천 대건고에 진학하게 됐다. 김정율은 182cm의 신장을 가진 오른발집이 공격수다. 이성규 감독이 “중앙 공격수로서 포스트 플레이와 득점력이 좋은 선수다. 희생정신도 뛰어나다”고 칭찬한 그는 이 감독이 언급한 것 외에 헤딩 능력과 볼 소유 능력도 좋다. “배우는 과정이 힘들더라고 버티면서 악착같이 하겠다”며 의지를 드러낸 김정율의 모델은 잉글랜드 국가대표팀의 주장인 해리 케인이었다. 김정율은 “찬스가 왔을 때 확실히 득점하고, 공간으로의 패스나 연계에도 적극적으로 기여하는 등의 플레이를 본받고 싶다”고 밝혔다.

인천 광성중의 최후방을 지켰던 김민결 골키퍼도 인천 대건고로 향한다. 이미 고교 대회 출전 경험이 있는 선수이기도 하다. 지난 9월 개최된 K리그 인터내셔널 유스컵에 출전한 인천 대건고는 기존 골키퍼들의 부재로 김민결을 투입했다. 승부차기에서 3개의 선방을 선보이는 등의 눈부신 활약을 펼친 그는 “고등학교 경기고, 해외 팀도 있어서 긴장이 많이 됐는데 형들과 코치님들이 용기를 주셔서 할 수 있었다”며 겸손함을 보였다. 이성규 감독은 “지난 시즌부터 주전으로 뛰었고, 최근에는 월반하여 고교 대회도 침기한 만큼 경험이 많은 선수다. 리더십도 좋아 경기 중 리딩 능력이 뛰어나다”고 설명했다. 그 외에 수비 조율과 선방 능력에도 강점을 가졌다. 유스 출신인 인천의 골키퍼 이름을 하나하나 언급하며 “선배들처럼 성공하고 싶다”고 말한 김민결은 이어 가장 닳고 싶은 골키퍼로 김동현을 뽐냈다. 그는 “김동현 선수의 빌드업과 키를 가장 배우고 싶다. 플레이에서 나오는 확신과 자신감도 배우고 싶은 요소”라고 밝혔다.



가장 빠른 승리의
특급 열차, 제르소

인천에 도움이 된다면 어떤 것인 할 수 있다

글 = 박범근 UTD기자(keu0617@naver.com)

선수 입장, 득점, 승리. 어느 경기장이든 이 순간에는 분위기가 달아오른다.

인천축구전용경기장에는 그라운드를 뜨겁게 만드는 장면이 하나 더 있다.

바로, ‘제르소가 질주하는 순간’이다. 제르소가 폭발적인 스피드로 달리기 시작하면, 골을 예감한 관중들은 목소리를 높인다.

팬들의 함성을 힘에 입은 제르소는 득점으로 그 기대에 부응한다. ‘가장 빠른 승리 특급 열차’라는 별명처럼 빠른 발로 인천에 승리를 안겨다 주는 제르소를 UTD기자단이 만나봤다.





1차 목표였던 파이널A + 아시아챔피언스리그 본선 진출, 이제는 더 높은 곳 향해

인천유나이티드는 8일 울산현대와의 원정 경기에서 0-0으로 비기며 2년 연속 파이널A 진출을 이뤄냈다. 제르소는 "매우 기쁘다. 파이널A는 우리가 시즌 초에 세웠던 주요 목표 중 하나였다. 아시아챔피언스리그 본선과 파이널A 진출이 가장 큰 목표였다. 그 두 가지 모두 이뤄내서 큰 자부심을 느끼고 있다. 이 성과를 얻기 위해 선수단이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는지 알고 있어서 더 뿌듯하다"라고 파이널A 진출 소감을 전했다.

인천 선수단은 울산전 직후 3일간 짧은 후기를 보냈다. 제르소는 "휴일 동안 잘 쉬었다. 특별히 다른 일은 하지 않았다. 3일 동안 집에 있었다. 아이가 2명 있고, 지금 아내가 임신 중이라 집에서 시간을 보냈다. 좋은 시간이었다"라고 휴식기 균형을 이야기했다.

파이널A 진출이라는 1차 목표를 달성한 인천은 이제 다른 큰 목표를 향해 달린다. 제르소도 더 높은 곳으로 향할 준비를 마쳤다. 제르소는 "남은 리그 경기에서 최대한 많은 승점을 쌓아 다음 시즌 아시아챔피언스리그 진출권을 얻는 것이 목표다. FA컵에서 우승하면 아시아챔피언스리그에 직행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FA컵에 앞서 리그 경기들이 남아 있다. 지금 당장은 그 경기들에 집중하겠다. 아시아챔피언스리그 본선에 오르기 위해 리그에서 높은 순위에 올라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더 큰 목표를 향한 의지를 드러냈다.



인천을 대표해 아시아 무대에 나서게 되어 자랑스럽다

올해 인천은 창단 이후 처음으로 아시아챔피언스리그에 참가하고 있다. 제르소는 포르투갈, 미국 등 아시아가 아닌 다른 대륙 소속의 팀에서 클럽 대항전을 경험해 본 적이 있다. 그러나 아시아챔피언스리그는 제르소 역시 이번이 처음이다. 제르소는 "아시아챔피언스리그라는 큰 무대에서 뛸 수 있다는 것은 특혜다. 다른 나라 팀들을 상대하는 경험은 아시아챔피언스리그가 아니라면 할 수 없다. 팬들이 느끼는 감정만큼 선수단도 이 대회가 얼마나 중요하고, 큰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알고 있다. 선수들에게 클럽 대항전은 동기부여가 큰 대회다. 인천을 대표해서 아시아 무대에 나서게 되어 자랑스럽다"라고 아시아챔피언스리그에 출전하고 있는 기분을 말했다.

인천은 지난달 19일, 요코하마 F. 마리노스 원정에서 4-2로 승리하며 아시아챔피언스리그 첫 경기에서 승전보를 전했다. 제르소도 이 경기에서 팀의 두 번째 골을 기록하는 등 인천의 사상 첫 아시아챔피언스리그 승리에 힘을 보탰다. 제르소는 요코하마 원정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원동력으로 '팬'을 언급했다.



우리 팀 외국인 선수들, 성향이 비슷해서 친해지기 쉬웠다

아시아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 일정이 시작되면서 인천은 주중에도 많은 경기를 치르게 되었다. 그중에는 외국 원정 경기도 포함되어 있다. 제르소는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다면, 아주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우리는 경기에 뛰기 위해 훈련한다. 경기 수가 늘어난다는 것은 출전 기회가 많아진다는 뜻이라 선수로서 굉장히 기대되는 일이다. 다

만, 경기가 많아진 만큼 회복과 몸 관리에 더 신경 써야 한다. 선수들 모두 프로페셔널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걱정하지 않는다"이라 고 힘든 일정에도 자신감을 보였다.

이어서 제르소는 "오히려 조성환 감독님이 고민이 더 클 것 같다. 매 경기 같은 선수를 내보낼 수 없고, 상대에 따라 전략도 바뀌기 때문에 감독님께서 선수 기용에 고민이 있으실 것 같다. 선수로서 내가 해야 할 일은 몸 상태를 잘 유지해서 감독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것이다. 꾸준히 경기에 나서고, 좋은 활약을 할 수 있게 회복과 몸 관리에 신경을 기울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제르소는 올 시즌 인천 선수 중에서는 유일하게 리그 전 경기에 출전하고 있다. 모든 공식 대회를 통틀어서도 팀 내 최다 출전 1위다. 철저한 몸 관리가 없었다면 이를 수 없는 기록이다. 몸 관리 비법을 묻자, 제르소는 "먹는 것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 회복을 촉진하고, 컨디션 유지에 도움을 주는 영양제도 복용하고 있다. 몸의 밸런스를 유지하기 위해 보충 운동도 거르지 않고 하고 있다. 그렇지만, 올해는 물론, 매년 꾸준히 하고 있는 루틴이라 이것이 특별한 비법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답했다.

간의 호흡 또한 뛰어나다.

제르소는 "전지훈련 때 외국인 선수들이 서로 비슷한 성향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아주 쉽게 친해졌다. 다들 이기적이지 않고, 서로 도우려고 한다. 선수로서는 물론, 사람으로서도 좋은 선수들이라 어울리기 쉬웠다"라고 외국인 선수들과의 관계를 설명했다.

외국인 선수 간의 케미스트리는 경기장 안팎에서 발현되고 있다. 지난 30일 리그 32R 수원 삼성전이 대표적이다. 제르소가 결정적인 기회를 놓치자 경기 후에 음포쿠가 제르소의 플레이를 칭찬하는 소소한 영상이 화제가 되었다. 제르소는 "인스타그램에서 그 영상을 봤다. 평소에도 음포쿠가 나에게 조언을 많이 해준다. 그 일이 있기 전에도 비슷한 상황에 대해 음포쿠와 이야기를 나눴었다. 나도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잘 알고 있다"라고 웃으며 이야기했다.

바로 이어진 아시아챔피언스리그 카야전에서도 외국인 선수들이 재미있는 장면을 만들어냈다. 에르난데스가 팀의 세 번째 골을 넣은 직후, 에르난데스와 제르소, 음포쿠가 손가락을 맞닿는 골 세리머니로 팬들이 이목을 끌었다. 제르소는 "우리의 커넥션을 보여주고 싶었다. 음포쿠가 나에게 패스를 주었고, 내가 에르난데스에게 연결해 에르난데스가 골을 넣었다. 경기 전부터 우리끼리 특점을 만들면 특별한 세리머니를 하자고 했다. 마침, 카야전에 그런 장면이 나왔다. 세리머니는 같이 하지 못했지만, 이 특점에 덜브리지도 관여했다. 골을 험직한 세 선수의 호흡을 상징한 장면이었다"라고 카야전 세리머니의 의미를 설명했다.



팬들의 응원은 내 활약의 원동력

제르소의 스피드는 올해 인천의 가장 강력한 무기다. 제르소가 공을 물고 달릴 때마다 팬들은 득점과 기대한다. 제르소가 속도를 올리면, 그와 비례해 경기장의 데시벨도 함께 올라간다. 제르소는 "내가 달리면, 관중의 함성도 커진다는 것을 실감하고 있다. 응원소리가 점점 커질수록 더 열심히 하게 되고, 더 질투나고 싶은 욕심도 생긴다. 말로 설명하기 힘든 묘한 느낌의 동기부여가 생긴다. 팬들의 응원은 내 활약의 원동력이 된다"라고 팬들의 함성에 감사해 했다.

제르소의 속도는 가히 K리그 최고 수준이다. 요코하마, 카야 등 외국팀과의 대결에서도 제르소의 빠른 발은 빛을 발했다. 스피드의 비결을 묻는 말에 제르소는 "많이 받아본 질문이다. 이 질문을 들을 때마다 내 답은 같다. 나의 스피드는 신으로부터 받은 선물이다. 물론, 속도를 높이기 위해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다. 그렇지만, 근본적으로는 타고난 것이 크다"라고 답했다.

제르소의 장점은 스피드뿐만이 아니다. 공을 향한 집념 역시 제르소의 가장 큰 장점이다. 잡기 어려울 것 같은 공도 끈질기게 쫓아가서 소유권을 얻어내는 플레이도 제르소의 무기다. 제르소는 "예전에도 공을 끌까지 쫓는 스타일이기는 했지만, 한국에 오고 나서 그 기질이 더 강해진 것 같다. 한국 선수들이 대체로 공을 향한 집념이 상당히 강하다. K리그에서 한국 선수들의 자세를 보면 많이 배웠다. 공을 따낼 수 있다면, 앞으로도 끝까지 싸우겠다"라고 이야기했다.

먼 것은 할 수 있다"라고 남은 시즌 목표를 전했다.

33R 기준, 제르소는 리그에서 도움 6개로 이 부문 선두와 단 2개 차다. 제르소는 "공격수로서 개인상 욕심은 당연히 가지고 있다. 그러나 개인상을 위해서 뛰지는 않을 것이다. 상은 팀을 위해 뛰다 보면 뒤따라오는 것으로 생각한다. 인천을 둔 것이 나의 최우선 목표다. 공격포인트를 기록하지 못해도 팀 승리에 공헌할 수 있다면, 나는 그것으로도 괜찮다"라고 도움왕 가능성에 관해 이야기했다.

마지막으로 제르소는 "힘든 시즌이었다. 승점을 얻기 위해 고생을 많이 했음에도, 초반에 원하는 만큼 점수를 획득하지 못했다. 팬들에게 패배의 감정을 많이 느끼게 한 것 같아 속상했다. 하지만 힘든 상황에서도 팬들은 항상 응원을 보내주셨다. 변함없이 응원해주신 덕분에 파이널A에 진출할 수 있었다. 올해 인천이 올린 성과는 팬들과 함께 향상된 업적이다. 팬들의 응원과 지지에 감사하다. 인천에서 오랜 시간 팬들과 함께하길 원한다. 리그, FA컵, 아시아챔피언스리그 모두 우리가 오를 수 있는 가장 높은 순위를 달성해서 팬들과 함께 기쁨을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팬들에게 메시지를 남기며 인터뷰를 마무리했다.





첫 시즌에 모든 대회 경험한 김건희, 꾸준히 열심히 하는 선수로 남고 싶다

글 = 손지호 UTD기자(thswlgh50@ajou.ac.kr)



인천은 이번 시즌 역대 최다인 8명의 신인 선수를 새로 영입했다. 그중 가장 많은 출전 기회를 잡은 선수가 있다. 바로 신인 수비수 김건희다. 김건희는 경남과의 FA컵 16강전을 시작으로 리그와 아시아 무대까지 밟으며 조성환 감독의 높은 신임을 받았다. 경기장에서 신인답지 않은 노력한 플레이를 보여주는 김건희를 UTD기자단이 만났다.

인천을 고른 이유, 팬들의 열정적인 응원 때문

김건희는 장안대학교에서 1년간 주장을 맡아 주축 수비수로 활약했다. 이후 황선홍 감독의 부름을 받아 울림픽 대표팀에 험류했었다. 2022년 활약을 바탕으로 올해 인천에 합류하게 됐다. 많은 팀들의 스카우트 대상이었지만 김건희는 인천을 택했다. 그 이유를 물었다. 김건희는 "울림픽

대표팀에 갔을 때 경현이 형, 시후 형이 있었다. 팬분들이 열정적으로 응원해 주시는 모습을 보고 인천에 오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라고 했다.

인천에 입단하면서 생각한 목표가 있는지 물었다. 김건희는 "신인이지만 팀에서 많은 경기를 뛰고 싶은 게 선수다. 이 팀에서 빠르게 적응하고 열심히 훈련해서 최대한 많은 경기에 출전하는 것이 목표였다"라며 당찬 포부를 밝혔다.



데뷔 시즌에 모든 대회 경험한 김건희, 동기부여를 얻다

김건희는 지난 5월 경남FC와의 FA컵 16강전에 선발로 출전하며 기다리던 입단 후 첫 공식 경기 대뷔전을 가졌다. 그날 김건희는 3백의 중심에서 신인답지 않은 여유로운 플레이와 위협적인 빌드업 능력을 앞세워 팀의 클린시트 승리를 이끌며 성공적인 데뷔전을 치렀다. 김건희는 "정말 기다렸던 데뷔전이었다. 긴장보다는 엄청 설렜고 몸을 풀려 들어갔을 때부터 너무 행복했다. 스스로 만족스러운 플레이를 했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팀이 승리해서 기뻤다"라고 당시 데뷔전 소감을 말했다.

이후 김건희는 지난 7월 대전과의 경기에서 후반전 막바지에 교체 출전하며 K리그 데뷔전을 치렀다. 하지만 짧은 출전 시간으로 아쉬움을 삼켰다. 그리고 한 달 뒤 김건희는 수원FC와의 경기에서 고대하던 리그 첫 선발 데뷔전을 가졌다. 이날 김건희는 김동민의 빙자리를 완벽하게 채우며 창단 첫 수원FC 원정 승리라는 값진 기록을 얻는데 기여했다. 김건희는 "FA컵 경기 때와는 다른 느낌이었다. 훨씬 더 긴장감 있었다"라며 당시를 회상했다.

감독님과 선배 선수들이 조언해 준 부분이 있는지 물었다. 김건희는 "감독님께서는 지금까지 준비 잘했으니 경기를 즐기라고 해주셨다. 다른 형들은 평소 하던 대로 하고 말 많이 하면 긴장이 좀 줄 거라고 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반석이 형이 여러 부분에서 많이 얘기해 주시고 경기장 안에서도 잡아주셨다. 신경서 주셔서 너무 감사했다"라고 감사함을 표했다.

김건희는 FA컵과 리그에서 활약을 바탕으로 지난 3일 아시아챔피언스리그 조별 리그 2차전 카야FC 일로일로와의 홈경기에서 선발 출전하며 역사적인 아시아 무대 데뷔전까지 가졌다. 김건희는 풀타임 출전해 팀의 4-0 대승에 일조했다. 김건희는 "국제 무대에서 뛰는 게 선수로서 어려운 일인데 데뷔 시즌에 경험할 수 있어서 정말 운이 좋은 것 같다. 다른 선배 선수들이

열심히 해주신 덕분에 나가는 거기 때문에 감사하게 생각한다"라고 소감을 말했다.

김건희는 데뷔 시즌에 인천이 올해 참가하는 모든 대회에 출전하며 큰 경험을 쌓을 수 있었다. 이에 대해 김건희는 "입단할 때 만 해도 데뷔를 바라보면서 훈련했는데 이제 와서 한 시즌을 돌아보니까 많은 경기를 뛰게 되었는데 정말 감사하게 생각한다. 더 꾸준히 노력하면 더 많은 경기를 될 수 있을 것이라는 동기 부여가 된 것 같다"라며 중요한 경험이었다고 강조했다.

김건희에게 대학 무대와 프로 무대를 비교했을 때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물었다. "확실히 대학 리그에 비해 경기 텁포가 전혀 다르고 선수들의 경험에서 나오는 플레이 차이가 큰 것 같다"라고 이야기 했다.



꾸준하게 열심히 하고 잘하는 선수로 기억되고 싶다

프로 첫해를 보낸 김건희에게 앞으로 어떤 선수가 되고 싶은지 물었다. 김건희는 "경기장에 나왔을 때 안정감을 느낄 수 있고 팀을 위해 희생하는 수비수가 되고 싶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인천 팬들에게는 어떤 선수로 기억되고 싶은지 물었다. 김건희는 잠시 고민하더니 "항상 꾸준히 열심히 하고 잘하는 선수로 기억되고 싶다"라고 이야기했다.

마지막으로 매거진을 통해 팬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는지 물었다. 김건희는 "팬분들께서 열심히 응원해 주신 덕에 파이널A에 오를 수 있었다. 앞으로 중요한 경기가 많이 남아있는데 모든 선수들이 좋은 경기력과 결과를 가져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니까 더 많이 응원해 주시면 좋은 결과로 보답하겠다"라고 메시지를 전했다.

팀에 새로 합류한 선수들은 팀에 빠르게 녹아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김건희가 많은 출전 기회를 가질 수 있었던 이유도 팀과 프로 무대에 빠르게 적응한 것이다. 적응하기 위해 노력한 부분이 있는지에 대한 물음에 김건희는 "우선 훈련장에서 최대한 열심히 하려고 노력했다. 생활적인 부분도 다른 형들이 편하게 먼저 다가와 주시고 챙겨주셔서 빠르게 적응할 수 있었다"라고 말했다.

클럽하우스에서 생활하면서 가장 잘 쟁겨 주는 한 사람을 뽐자면 누구인지 물었다. 김건희는 "모두 다 잘 쟁겨 주시지만 유성



2023시즌, 초반의 어려움을 딛고 인천은 2년 연속 파이널A 진출을 확정 지었다. 이 성과가 의미 있는 이유는 파이널라운드 제도가 도입된 2012년 이후 상위 그룹보다 하위 그룹이 더 익숙한 인천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시즌은 인천은 지난 시즌에 이어 다시 한번 파이널A 진출을 확정 지으며 강팀이 되었음을 알렸다. 이를 기념하며 인천이 지금껏 지나온 파이널라운드의 역사를 살펴보자 한다.



2012년, 아쉬운 하위 스플릿행

2012년 전반기, 인천이 16경기 동안 거둔 승리는 단 한 번뿐이었다. 1승 7무 8패의 기록을 가진 인천이었으나 후반기에서 완전히 두바운 모습을 보였다. 시즌 두 번째 승리였던 17라운드 경기를 포함해 정규리그 마지막 경기까지 9승 3무 2패를 기록했다. 한때 최하위권에 머물렀던 인천은 중위권까지 올라오며 상위 스플릿(스플릿A) 진출 마지막 순위인 8위까지 올라갔다. 모든 구성원이 스플릿A를 기대했으나 현실이 되진 못했다. 정규리그 종료 이후, 인천은 8위와 승점은 같았지만 골득실에 밀려 9위를 거뒀다. 그렇게 인천의 첫 스플릿 리그는 하위 스플릿(스플릿B)으로 시작하게 됐다. 하지



2015년, 눈물 흘리게 만든 하위 스플릿행

시즌 초 8경기 동안 승리는 한 번도 없었다. 하지만 첫 승을 포함해 3연승을 달린 후 분위기는 바뀌었다. 이후에도 준수한 성적을 거둔

만 스플릿 리그에서 최종 7승 6무 1패를 거둔 인천은 7경기를 남겨두고 잔류를 확정 짓는 편안한 시즌을 보냈다.



2013년, 창단 첫 상위 스플릿 진출

2013년의 전반기는 젊은 선수들과 베테랑의 신구 조화를 앞세워 최고의 활약을 펼쳤다. 13경기 동안 6승 5무 2패를 거둔 인천은 3위까지 올랐다. 특히 13경기에서 11점만을 실점하며 리그 최소 실점을 기록하기도 했다. 하지만 최상위권 경쟁을 펼치던 상승세는 후반기까지 이어지지 못했다. 전반기에 비해 다소 아쉬운 성적을 기록한 후반기였지만, 이전의 활약을 바탕으로 중위권 성적에 성공했고, 정규리그를 한 경기 남겨두고 스플릿A 진출을 확정 지었다. 창단 첫 상위 스플릿 진출이었다. 최초로 상위 스플릿에 진출한 만큼 시도민구단 최초의 아시아챔피언스리그 진출을 기대했으나, 스플릿 리그에서 1승 6무 5패를 거두며 스플릿A 최하위인 7위로 시즌을 마무리했다.



2016년, 생존왕 역사의 시작

시즌 초반 11경기 동안 무승을 기록하며 강등이 현실화되는 것으로 보였으나 6월과 7월, 두 달간 4승 4무 2패를 기록하며 반등의 계기를 마련했다. 하지만 기세는 꾸준하지 못했고, 하락세와 상승세를 반복하던 인천은 정규리그 마지막 경기에서 11위에 올라 스플릿B로 향하게 됐다. 스플릿 리그 최종 성적은 3승 1무 1패, 극적인 잔류였다. 특히 운명이 결정된 마지막 경기가 백미였다.

인천은 수원FC를 상대로 1-0 승리를 거두며 시즌 내내 맴돌던 강등권에서 탈출했고, 10위로 시즌을 마무리 지으며 잔류에 성공했다. 당시 인천 팬들은 기쁨에 경기장으로 뛰어들며 장관을 만들어냈다. 이 시즌을 기점으로 인천의 '생존왕' 역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2017년, 쉬운 일 하나 없는

주축 선수들의 이탈로 개막 전부터 우려를 낳았던 시즌이었다. 그리고 우려는 사실이 되었다. 인천은 정규리그 내내 강등권에서 헤맸다. 정규리그 종료 당시 성적은 6승 15무 12패로, 11위를 거두며 스플릿B로 가는 것이 일찌감치 결정되었다. 스플릿 리그 돌입 이후 3경기에서 2무 1패를 거둔 인천은 37라운드에서 승리한다면 잔류를 확정 지을 수 있었으나 무승부를 거두며 결국 최종 전인 38라운드까지 가게 됐다. 다행히 마지막 경기에서 상주상무를 상대로 2-0 승리를 거둔 인천은 9위에 오르며 무사히 1부리

인천은 중위권까지 올라가는 것에 성공했다. 스플릿 그룹이 결정되는 정규리그 마지막 경기, 인천은 무승부만 거둬도 스플릿A에 진출 할 수 있었지만, 한 점 차로 패배하며 결국은 스플릿B로 향하게 됐다. 당시 감독이었던 김도훈 감독은 아쉬움에 경기 후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하지만 정규리그 종료 이후 있었던 FA컵 준결승 경기에서 승리하며 구단 최초로 FA컵 결승행을 이루어낸 팬들의 아쉬움을 달랬던 시기였다. 스플릿 리그에서는 1승 3무 1패를 거두며 최종 8위로 리그를 마쳤다.

그에 생존할 수 있게 되었다.



2018년, 가을 인천을 보여주다

첫 승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렸던 근래의 시즌과는 다르게 두 경기 만에 시즌 첫 승을 거뒀다. 이전과는 달라가 싶었지만 이후 16경기 동안 승리를 거두지 못하며 최하위까지 추락했다. 온 안데르센 감독이 인천의 새로운 사령탑으로 부임하며 반등을 꿈꿨지만, 그 반등은 정규리그 동안에는 나타나지 못했다. 당연히 드 스플릿B로 향하게 된 인천은 스플릿 리그 첫 경기에서도 패배하며 최하위인 12위를 벗어나지 못했다. 하지만 기울이 인천답게 인천은 남은 4경기에서 모두 승리를 거렸고, 최종 순위 9위로 잔류에 성공하는 드라마를 만들어냈다.



2019년, 첫 파이널 라운드와 달라지지 않은 위치

2018시즌과 마찬가지로 2라운드부터 승리를 거뒀으나 이어진 것은 5연패, 특히나 1득점 13실점이라는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유상철 감독이 새롭게 부임한 후 3경기 만에 승리를 거두지만, 시즌이 쉽게 풀리지는 않았다. 다행히 시즌 중반 김도혁이 아산 무궁화에서 복귀했으며, 다른 선수들이 소방수로 합류한 인천은 회복된 경기력과 결과를 거두며 정규리그를 마무리 지었다. 하지만 순위는 11위, 여전한 강등권이었다. 2019시즌부터 스플릿 라운드의 명칭이 파이널 라운드로 변경되었다. 하지만 인천의 위치는 달라지지 않았고, 스플릿B를 의미하는 파이널B로 향하게 됐다. 최종전에서 무승부 이상을 거둬야 자력으로 잔류를 확정 지을 수 있었던 인천은 경남FC와 0-0 무승부를 거뒀고, 최종 순위 10위로 아슬아슬하게 잔류에 성공했다.



2020년, 역대급 생존기

코로나로 인해 개막이 미뤄지며 리그 일정이 축소되고 시즌 대부분 무관중으로 치른 초유의 시즌이었다. 생존 경쟁 측면에서도

그야말로 '역대급' 시즌이었다. 시즌 개막 후 2연속 무승부를 거둔 인천은 이후 8연패를 기록했다. 이는 리그 연패 최다 타이기록으로, 매번 생존 경쟁을 펼친 인천에게도 최악의 성적이었다. 다음 경기에서 극적인 무승부를 거두며 연패를 끊는 것은 성공했지만, 이후에도 승리는 없었다. 15경기째였다. 새롭게 부임한 조성환 감독은 16라운드에서 첫 승을 만들어냈고, 이후 3승 1무 2패를 거두며 파이널 라운드에 돌입했다. 2020시즌은 상주상무의 연고지 변경으로 인한 2부 리그 행이 확정되어, 11위만 올라도 잔류를 확정 지을 수 있었지만, 인천은 여전히 12위였다. 그때 반전이 펼쳐졌다. 인천이 파이널 라운드 첫 경기에서 성남FC를 상대로 6-0 대승을 거둔 것. 디딤점에서도 우위를 점할 수 있게 된 인천은 이 경기를 통해 11위로 올라섰다. 패배 시 강등이 확정되는 부산아이파크 전에서 김대중과 정동윤의 골로 극적인 역전승을 거둔 인천의 운명은 다시 최종전으로 향했다. 반드시 승리해야 하는 최종전, 인천은 라이벌 FC서울을 만나 1-0으로 승리하며 잔류에 성공했다. 최종 11위를 기록한, 여느 때보다 기적적인 잔류였다.



2021년, 변화의 시작

2021시즌은 2경기 만에 첫 승을 거두고, 5라운드 만에 시즌 두 번째 승리를 거두며 이전과는 다른 시작을 보여주었다. 최하위까지 추락했던 하락세와 4위까지 오르는 상승세가 이어지며 인천은 오랜만에 파이널A 진출을 노렸다. 하지만 하락세는 다시 찾아왔다. 1무 6패를 기록했고, 순위는 다시 떨어졌다. 파이널 라운드 돌입 직전 마지막 경기에서 승리를 거두긴 했으나, 벌어진 승점 차이를 극복하지 못한 인천은 8위로 파이널B로 향했다. 그래도 안정적으로 승점을 쌓았던 인천은 두 경기를 남겨두고 강원FC와의 경기에서 무승부를 거두며 조기 잔류를 확정 지었다. 아쉬움은 남았지만, 최종전에서 잔류를 확정 지었던 최근 몇 년과는 다른 시즌이었던 것만은 분명하다.



2022년, 올해는 "정말" 달랐다

2022시즌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한골탈

태'였다. 시작부터 달랐다. 구단 역사상 최초로 홈 개막전 승리를 했고, 10라운드까지 5승 4무 1패를 거두며 2위를 달린 인천은 이후에도 꾸준히 좋은 성적을 기록하며 6위 이하로 떨어지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위기도 있었지만 추락하지 않았다. 인천은 정규리그를 두 경기 남겨놓은 31라운드에서 자력으로 파이널A 진출을 확정 지었다. 이는 9년 만의 기록으로, 스플릿 시스템이 도입된 이후 두 번째 상위 그룹 진출이기도 했다. 파이널 라운드에서 1승 2무 2패를 거둔 인천은 최종전을 치르기 전 4위를 확정 지었다. 2년 전까지만 해도 생존 경쟁을 펼치던 인천이 놀라울 정도의 발전을 이뤄낸 해였다. 더불어 청단 최초로 아시아 무대로 향하게 된 해이기도 했다.



2023년, 2년 연속 파이널 A 진출

지난 시즌과 같은 시기를 비교했을 때 인천의 전반기는 다소 씁쓸했다. 10위까지 떨어지며 다시금 생존 경쟁을 해야 하는 위기를 맞이하기도 했다. 하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인천은 FA컵 4강 진출에 성공했으며, 후반기부터 점차 달라진 모습을 보였다. 20라운드부터 32라운드까지 13경기 동안 8승 3무 2패를 거두었고, 구단 역사상 처음으로 출전한 아시아챔피언스리그 경기에서 2연승을 거두며 잔류에 성공했다. 최종 11위를 기록한, 여느 때보다 기적적인 잔류였다.

다시 가을이다. 인천에게는 리그와 아시아챔피언스리그, FA컵까지 많은 일정이 남아 있다. 위기를 극복해낸 인천이 올 시즌 남은 시간 동안 팬들에게 어떤 기쁨을 안겨줄지 기대가 모이고 있다.

글 = 성의주 UTD기자 (sung.eju.shin@gmail.com)

IUFC BLUE MARKET

인천축구전용경기장을 찾았던 팬 여러분이
더욱 쾌적하고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더 넓은 공간으로 이전 및 리뉴얼 오픈하였습니다!



📍 블루마켓 매장 위치

인천축구전용경기장 GATE-WG7 옆
기존 블루마켓 2층 (구 스카이라운지)

※기존 블루마켓 입구로 입장 후 내부 계단을 통해 2층 블루마켓으로 이동

🕒 운영 시간

경기 시작 2시간 30분 전 ~ 경기 종료 후 30분

※경기 중에는 매장 재정비를 위해 운영하지 않습니다. (하프타임 매장 이용 가능)

www.incheonutdmarket.com

온라인 블루마켓은 365일 OPEN



2023시즌 인천유나이티드
직관의 감동을 계속 느끼고 싶다면?

지금 인천유나이티드
공식 유튜브 / 카카오TV / 네이버TV
채널을 구독하세요!

인천의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YouTube



kakao tv



NAVER TV